

# 기다림의 미학 '장 담그기' 전통을 담고 맛을 잇다

한국인 밥상 책임진 '된장·간장·고추장'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집집마다 만드는 법 다양각색 "전통 살리며 맛·향·품질 개선해야"

"집안의 요긴한 일 장 담는 정사(政事)보다 / 소금을 미리 받아 법대로 담그리라..."(『농가월령가』 3월령 중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장 담그기는 집안 행사 중에서 가장 큰 일이었다. 된장, 간장, 고추장 등 각종 장은 음식 맛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고 한 집안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했다. 계절에 따라 장을 담고 보관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대대로 이어져 온 '씨간장'을 고이 보관하거나 장독 주변에 나쁜 기운이 들어가지 않도록 금줄을 치고 버선을 거꾸로 붙여놓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옛 속담에는 '장맛이 좋은 집에 복이 많다'거나 '장맛이 변하면 집안에 흉한 일이 생긴다', '집안 사정은 장맛으로 안다' 등 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표현이 여럿 남아있다. 그만큼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장은 한국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식품"이라고 평가했다.

장을 담고 먹는 문화는 오랫동안 대(代)를 거치며 이어져 왔다.

콩을 주원료로 삼아 소금과 함께 발효시켜 만든 음식 문화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전승됐는데, 한국에서는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장 트리오'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중국 역사서 '삼국지(三國志) 위서 동이전에는 고구려와 관련해 "발효음식을 잘 만든다"는 내용이 있고,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장과 관련한 기록이 전한다.

조선 왕실에서는 장을 보관하는 창고인 장고(醬庫)를 두고 '장고마마'라 불리는 상궁이 직접 장을 담고 관리할 정도로 장을 중요하게 여겼다.

정혜경 호서대 명예교수(식품영양학과)는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린 무형유산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장은 채식과 발효음식 문화를 가능하게 했던 한국 음식 문화의 정수"라고 강조했다.

집마다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점은 장의 특징이다.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들고, 적당한 조건에서 발효시킨 다음 숙성·보관해 맛있는 장을 담그는 일련의 과정은 지역마다 또는 가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컨대 충남 논산 파평 윤씨 종가에서는 일반 가정보다 메주를 4배 이상 넣어 간장을 만들며, 6개월 정도 숙성한 뒤 씨간장을 넣는다고 한다.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팥을 이용해 장을 담그며 삶은 메주콩을 식혀 메밀가루를 묻혀 발효시키거나 노란 콩과 검은콩을 섞어 익히는 집도 있다.

한국의 장은 시간과 정성으로 만드는 음식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장 담그기의 핵심은 메주를 썬고 띄우는 일련의 과정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날씨가 쌀쌀한 음력 정월을 전후 장을 담그는 풍습이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숙성시킨 뒤 액체를 달여 간장을 만들려면 최소 5~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술을 제외하면 이처럼 오랜 시간을 들이는 음식은 많지 않은 편이다.

한국장류기술연구회장인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식품공학과)는 한국의 장 문화를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언급하며 "역사와 시간이 응축된 문화적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오늘날은 전통 방식으로 장을 담그기보다 사 먹는 사람이 많은 게 사실이다. 최근에는 식문화가 달라지면서 장류 소비도 줄어들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 교수는 "우리 전통 장을 만들고 함께 나누는 문화의 근간은 살리되 맛과 향,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 송기숙 선생 3주기 추모식 7일 국립5·18민주묘지 역사의 문

지난 2021년 별세한 송기숙 선생은 한국 소설문단에 큰 족적을 남긴 민중문학의 거장이었다. 고인은 우리시대의 마지막 리얼리스트라 평가될 만큼 자신만의 개성적인 문학세계를 일궜다.



고 송기숙 작가

대하소설 '녹두장군'은 민중해방의 선구자, 녹두장군 전봉준의 삶을 그린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부패한 봉건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녹두장군의 열망과 사상을 선 굵은 문체로 그렸으며 전라도 특유의 사투리는 물론 아름다운 풍광을 작품 속에 녹여냈다.

송기숙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임현영, 기념사업회)가 3주기 추모식을 연다. 오는 12월 7일 오후 1시 국립5·18민주묘지 역사의 문.

이번 추모식은 송기숙선생기념사업회(장흥)를 비롯해 광주전남소설가협회, 광주전남작가회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 우리의 교육지표기념사업회, 한국작가회의, 장흥문학회, 광주민예총 등이 공동 주최한다.

1936년 장흥에서 태어난 송기숙 작가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유신체제, 5·18민주화운동 등 격동의 현대사를 온 몸으로 겪은 산증인이었다. 선생의 창작활동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됐다.

임현영 송기숙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송기숙 교수 등 11명이 주축이 돼 발표한 '우리의 교육지표'는 학원의 민주화를 주장했던 선언이었다"며 "이외에도 선생은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를 위해 창작과 행동을 일치시켰던 지식인이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약무호남 시무국가' 시대정신 광주전남발전협 세미나 성료

호남의 정체성, 정신을 말할 때 곧잘 인용되는 문구가 있다. 바로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海是無國家)가 그것이다.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었을 것"이라는 충무공 이순신의 명언이다. 국내외 정세로 어지러운 작금에 '약무호남 시무국가'는 되새겨야 할 정신이다.

'약무호남 시무국가'에 담긴 시대 정신을 조명하는 세미나가 성료됐다.

광주전남발전협의회는 4일 광주향교 유림회관 대강당에서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호호남 시무국가(若無湖海是無國家)의 시대정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호남을 사수했던 '이순신의 호남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법'의 주제로 송은일(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연구실장), '양란과 보성의병'의 주제로 김덕진(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장성 남문장의 맹주인 김경수공의 생애와 활약상'의 주제로 김동하(전 서영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나주 빛가람초 예술꿈나무들 설레는 무대 '예술 더하기 수업'

한국문예위 성과공유회

'예술 더하기 수업'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남 소재 전문 예술단체들과 협력하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빛가람초는 이를 통해 연극, 음악, 문학, 영화 등 총 6개 예술 장르에서 학년 별로 정규 교과 수업을 진행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문예위)가 '예술 더하기 수업 성과공유회'를 최근 나주 빛가람초등학교에서 성료했다.

먼저 빛가람초 4학년 학생 161명이 '음악, 다문화를 더하다'를 주제로 강당 무대에서 합창 공연을 펼쳤다. 2학년 학생들은 건축의 기본 원리와 집의 형태를 탐구하는 '우리들의 집과 건축'전을 교내에서 진행했다.

3학년은 '학교 공간에 표정 만들기'라는 내용으로 결개그림, 테이핑 아트 등 설치미술을 마쳤으며 5학년은 '빛가람 문화 작가'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적 사건에 상상력을 더해 문학



나주 빛가람초 1학년 학생들의 연극 공연 장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작품을 완성했다.

6학년은 시청각실에서 '열세 살, 나도 영화감독'이라는 주제로 2학기 동안 직접 제작한 단편 영화 8편을 상영한 뒤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눴다. 이외 지역 친환경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티베트 난민촌 수공예품을 전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문예위 정병국 위원장은 "빛가람초와 함께 한 '예술 더하기 수업'이 예술 꿈나무들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작은 매개가 됐을 것이다"며 "향후 혁신도시 내 라온초, 빛누리초, 한아름초 등과 함께할 수 있도록 협력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여성영화인상에 배우 라미란

여성영화인모임은 올해 여성영화인상에 배우 라미란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라미란은 영화 '시민덕희' 등을 통해 배우로서 한국 영화를 지켜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배우 라미란

공로상에는 주진숙 중앙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주 교수는 영화평론가협회장, 국제영화비평가 연맹 한국지부 회장 등을 역임한 대표 영화학자다. 도서 '여성영화인사전'을 펴내고 여성영화인모임의 탄생을 주도하는 등 여성 영화인들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연출·제작 등 각 분야에서 한국 영화 발전에 기여한 영화인에게 주는 강수연상에는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가 선정됐다. 여성영화인모임은 오는 16일 서울 인디스페이스에서 문소리 배우의 사회로 시상식을 연다. /연합뉴스

wilo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